

도토리거위벌레의 지혜



내 고향은 양산시 상북면 대석리이다. 마을에는 비교적 큰 저수지가 있다. 원효산 자락에 홍룡사라는 유서 깊은 절이 있고 홍룡폭포와 함께 명승지로 잘 알려진 곳이다. 지금은 물안뜰, 다래마루로 불린다.

나의 어릴적 꿈은 초등학교 선생님이었다. 옛날 담임선생님께서 가정형편이 어려워 도시락을 못 가져오는 학생을 슬그머니 불러 당신의 도시락을 대신 주시던 모습을 보고 어린 마음에 나도 이 다음에 꼭 선생님과 같은 훌륭한 교육자가 되리라고 희망했었다.



이창우

(주)우리엔지니어링사무소 전무
도로 및 공항기술사, 국제기술사

그때는 60년대 중반이라 가난한 집들은 정부에서 밀가루와 옥수수가루 등의 식량배급으로 생활을 했고, 학교에서는 우유 등의 배급품으로 겨우 생활했던 기억이 생생하다. 그런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양산중학교, 양산고교를 다니면서 배움에 목마른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다짐했다. 강원도 산골이나 섬마을 등 도서벽지에 가서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참신한 선생이 되고 싶어 보수동 헌책방 골목을 뛰어다니면서 페스탈로치의 아동심리학, 교육원리 등에 심취되어 한동안 참 많이도 읽었다. 그런 과정으로 부산 교육대학에 입학시험을 보게 되었고 그 결과 1차 합격이라는 영광을 안았다. 그러나 2차 시험에서 생전 처음 보는 피아노를 치라는 실기시험에 당황했고 어설픔게 흥내만 내다 결국 최종적으로 불합격했던 아픈 추억을 갖고 있다.

그렇게 나의 어릴적 꿈은 냉혹한 현실 앞에서 사라졌다. 지금은 대한민국 건설의 역군으로 국내외 현장의 전문 기술자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 현재 고향 현장에서도 감리단장으로 맡은 바 책임을 다하고 있는 중이다. 만학으로 해당 업무의 최고인 기술사 자격증도 여러 개 취득했고, 주경야독으로 부산대학에서 석사학위도 받았다. 아직도 교육에 대한 미련은 있지만, 요즘 학생들의 마음가짐과 사제지간의 메마른 현실을 보면 차라리 그때 꿈꾸었던 교육자의 길로 나가지 않은 것이 다행이라는 위안도 해본다.

배움에는 지식과 지혜가 있다. 책이나 교육으로 얻는 지식이 있고, 슬기롭게 살아가며 얻는 지혜가 있다. 그 둘 중에 분명한 것은 화려한 지식보다 삶의 지혜가 묻어나는 방법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몇 달 전 점심을 먹고 현장 뒷산에 오르다가 참나무 잔가지에 떨어진 도토리에서 알을 깬 도토리거위벌레를 보며 잠시 생각에 잠긴 적이 있어 그때를 기억하며 몇 자 적어본다.

우리나라에서 자라는 낙엽성 참나무류는 크게 상수리나무, 신갈나무, 떡갈나무, 갈참나무, 졸참나무, 굴참나무 등 6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참나무에서 잔가지를 잘라 아래로 떨어뜨리는 녀석은 도토리거위벌레이다. 이 녀석들은 채 익지도 않은 부드러운 도토리에 산란을 하고, 알에서 깨어난 새끼가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가지를 잘라 땅에 떨어뜨린다. 그때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나뭇잎 서너 장을 함께 붙여 프로펠러 원리를 이용해 땅바닥에 사뿐히 내려 앉을 수 있게 한다. 그리고 그 위에 낙엽이 쌓이면, 애벌레는 얼지 않고 도토리 과육을 먹으며 따뜻한 겨울을 지내게 된다. 길이가 1센티미터도 안 되는 도토리거위벌레의 지혜가 참으로 놀랍기만 하다.

도토리거위벌레는 주둥이가 거위 목처럼 길다고 거위벌레라는 이름을 얻었다고도 하고, 또는, 가위처럼 나뭇가지를 잘라르기 때문에 가위벌레라 한 것을 공무리에 가위를 가진 가위벌레와 구분하기 위해 거위벌레라고 했다는 말도 있다. 여하튼 거위벌레 중에서 먹이를 도토리로 하는 까닭에 도토리거위벌레가 되었으리라.

떨어진 도토리 속에는 도토리거위벌레가 낳은 알이 있다. 도토리거위벌레는 주둥이를 톱같이 사용하여 가지를 자르고 송곳과 같이 돌려가며 도토리에 알을 낳을 구멍을 뚫는다. 태어날 자식이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도토리의 단단한 껍질을 뚫기 위해 하루 종일 주둥이를 처박고 돌고 또 돈다. 덜 익은 도토리는 도토리거위벌레 유충의 양식이 된다. 이렇게 자식의 생을 위해 부드러운 흙으로 안전하게 보낸 뒤, 도토리거위벌레는 어미로서의 여생을 마무리한다.

우리는 어머니의 사랑으로 시작해서 참된 교육을 거쳐 바람직한 성인이 된다. 요즘 뉴스를 접하는 무서운 사건사고들을 보면 사랑받지 못한 아픔과 내 자식만 사랑하는 개인 이기주의가 변질돼 자식의 교육마저 망쳐 놓은 결과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이 시대의 문제점과 관련해 도토리거위벌레의 지혜를 생각하며, 우리는 한 번쯤 스스로를 되짚어 보고 나부터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해야 할 때인 것 같다. 사랑이 넘쳐나는 따뜻한 세상을 꿈꾸며... 카셈

